

트롯 공화국에서 모두 안녕하십니까?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트롯>과

<사랑의 콜센타>에 관하여

박경아

1. 트롯 공화국의 탄생: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성과

지금 대한민국은 트롯 공화국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없이는 숨 한 번 크게 쉴 수 없는 거리로 나가보라. 자영업자들은 생활고를 호소하고, 그 증표라도 되듯이 폐업한 가게들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가방을 멘 학생들이 삼삼오오 돌아다녀야 할 등하곳길에는 썰렁한 가을바람만 분다. 그 인적 드문 거리에 새로 세워진 광고판에는, 이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얼굴이 등장해서 활짝 웃고 있다. 그들의 이름은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나태주……. 광고야말로 시대의 풍향계이니던가. 이른바 ‘트롯맨’이라 불리는 이들의 웃는 얼굴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데 그것이 바로 ‘트롯 공화국’이다(한글 표기법은 트로트가 맞다. 그러나 이제는 다들 ‘트롯’이라고 쓴다. 이 변화는 그저

지나쳐도 좋을 만한 작은 변화가 아니며 어떤 질적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트로트와 '트롯'을 구분해서 쓸 것이다. 트로트가 나훈아, 남진, 이미자에서 태진아, 송대관을 거쳐 박현빈, 장윤정까지를 일컫는 흐름을 지칭한다면, '트롯'은 이 흐름을 단박에 뛰어넘는 새로운 흐름 즉 뉴웨이브, 더 거창히 말하자면 세대교체를 말한다).

트롯 공화국도 하나의 나라이므로 어찌 개국공신이 없겠는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는 무엇보다 민심을 읽는 냉철한 눈과 혁명적 기운을 감지하는 뜨거운 심장이 함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TV조선은 2019년에 <내일은 미스트롯>을 방영함으로써, 트로트를 대중문화의 무대 한가운데로 끌어올렸고, 한국 대중음악의 방향전환을 도모했다. 그 방향 전환에 적극적 의지가 있었는가는 괄호 안에 넣어두자(물론 괄호 안에서 행해지는 분석과 판단은 후술하겠다. 먼저 약간의 예고를 하자면 이 글의 결론은 결코 '트롯 만세!'이거나 'TV조선 잘했다!'가 아니다).

결괏값을 놓고 보자면 <내일은 미스트롯>은 대성공이었고, 정확히 민심을 읽어낸 성과였다. 대중은 트로트에 혁명적 기운을 불어넣어 '트롯'으로 만들어졌고, 보수적 시사 종편으로만 인식되던 TV조선은 이제 'TV트롯'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방송사가 되었다.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시작된 트롯 공화국의 열망은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트롯 공화국의 출범으로 귀결되었다. 이 글이 논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다. 방송사의 기획과 대중의 숨겨 있던 열망이 결합되어 출범한 트롯 공화국은 아무 문제가 없는가? 트롯 공화국에서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2. 트롯 공화국 이전: 〈내일은 미스트롯〉의 기획과 대중의 호응

TV조선이 〈내일은 미스트롯〉을 기획했을 때, 주변 상황은 어떠한가. 인기가요 순위 프로그램은 10대들의 영역이 된 지 오래고, 〈나는 가수다〉에서 시작하여 〈불후의 명곡〉과 〈비긴 어게인〉까지 가창력을 뽑내는 프로그램은 발라드 가수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다 새로운 장르로 부상한 것이 힙합이었다. 〈쇼미더머니〉에서 시작한 힙합 열풍은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언더그라운드에서 있던 래퍼들이 대중문화의 주류로 올라왔고, 이들은 음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패널로도 활약하게 되었다.

그에 비해 트로트는 어떠한가. 〈전국노래자랑〉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출연자가 부르는 음악 장르였으나, 그 ‘장마당 민심’, ‘바닥 정서’와는 다르게 방송에서는 비주류 음악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지상파 3사 중에서는 KBS1의 〈가요무대〉를 제외하고는 정규 편성된 트로트 프로그램이 전무했다.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는 어떻게 소비되었는가. 비교적 나이가 적은 가수들은 방송에는 잘 안 나와도 방방곡곡 행사가 많아 돈을 잘 번다는 식으로 소개되었고, 나이가 많아 원로가수라 불리는 이들은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는 했지만 한물간 구세대로 취급되었다. 트로트 가수에게는 가창력을 논하지 않고, 어떻게 꺾는지 ‘기술’을 알려달라고 했다. 민심의 음악 바다에는 트로트가 반이었는데, 방송 프로그램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TV조선의 기획은 절묘했다. 일종의 하이콘셉트 전략을 구사한 것인데, 이미 타 방송사에서 실행한 것들을 제외하니 한 장르가 남았다. 바로 트로트! 〈슈퍼스타K〉부터 〈케이팝 스타〉, 〈쇼미더머니〉, 〈보이스 코리아〉 등등 오디션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오디션 프로그램은 많

왔지만, 어느 방송사에서도 트로트만을 한정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실제 오디션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트로트는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 성악, 발라드, 심지어 힙합을 하던 사람도 약간의 연습만 하면 트로트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트로트 한 곡 정도는 뽑을 수 있다는 말이다. 부르는 것만 진입장벽이 낮은 게 아니라 듣는 것도 트로트는 진입장벽이 낮다. 말리 교향곡을 즐기는 데는 긴 시간과 집중된 노력이 필요하지만 트로트는 그렇지 않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얼굴’에 대한 갈증이 트로트에는 늘 있었다. 장윤정과 박현빈 이후에 이렇다 할 새로운 가수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트로트 장르 안에서는 젊은 가수인 장윤정과 박현빈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심사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이런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볼 때, 트로트 가수를 뽑는 오디션은 최대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가창력과 인간미를 갖춘 새로운 트로트 가수를 고대하던 팬들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열광적으로 화답했다.

트로트 가수를 뽑는 오디션이었지만, TV조선은 프로그램명에 트로트가 아니라 ‘트롯’을 붙임으로써 트로트에 두 가지 새로움을 더했다. 하나는 물을 것도 없이 새로운 가수의 탄생이고, 또 하나는 트로트의 외연 확장이다.

3. 트롯 공화국의 통치: 〈사랑의 콜센타〉의 감동적 만남

어떤 나라든지 간에, 새로 세상에 발을 내디딜 때는 온갖 좋은 말을 다 갖다 쓴다. 그 좋은 말씀들이 알알이 박혀 있는 문서를 우리는 헌법이라 부

른다. 트롯 공화국의 헌법은 무엇인가? 헌법에 따라 통치를 잘하고는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다. 트롯 공화국 헌법도 이와 비슷하다. 제1조 1항: 트롯 공화국은 신바람과 위로의 나라다. 제1조 2항: 모든 주권은 팬에게 있고, 모든 인기는 팬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 헌법에 따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원래 <내일은 미스터트롯>도 2019년의 <내일은 미스트롯>처럼 전국 각지를 돌며 팬들을 만나는 콘서트와 <뽕숭아학당>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 계획은 코로나19 때문에 무산되었다. 그러나 국가란 비상사태에도 통치행위를 포기할 수 없는 법. 일단 새로운 가수는 뽑혔다. 최후의 승자를 뽑을 때는 투표 결과를 합산하는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최고 시청률은 35.7%. 다시 볼지 못할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 바람을 어찌 가만두겠는가.

TV조선 제작진의 후속작은 코로나19 상황을 역이용하는 꾀를 보여주었다. 텔레비전이 PC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에 비해 레거시 미디어가 된 지는 벌써 몇 년이 되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은 레거시 미디어가 된 텔레비전이 뉴미디어에 소외된 계층을 어떻게 품어내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뿐 아니다. 트위터도,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틱톡도 하지 않는 세대 중에도 열렬한 팬이 있으며, 그들도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사랑의 콜센타>는 '콜센터'라는 표준 표기법 대신에 '콜센타'라는 구식 표기법을 선택했다. 방 송국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신청하고, 또 그 가수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니! 사실 이것은 텔레비전보다 훨씬 더 오래된

미디어인 라디오의 전매특허인 '전화 연결' 방송이었다. 이 '전화 연결'을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의 일인데, 여기에는 시청자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장치가 내재되어 있다.

시청자가 전화를 하면 제작진은 일차적으로 방송에 소개될 만한 사연을 가진 팬을 가려서, 트롯맨 중 한 사람과 통화 연결을 해준다. 팬들은 왜 자신이 임영웅을, 영탁을, 장민호를, 정동원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걱정적으로 털어놓는다. 팬은 목소리만을 들려주는데 카메라는 이것을 듣는 트롯맨의 얼굴을 보여준다. 대개 사연은 눈물겨운 경우가 많다. 시청자는 팬의 사연에 한 번 울고, 그것을 듣는 트롯맨의 눈에 맺힌 눈물에 한 번 더 온다. 모두의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특별한 사연이 깃든 노래를 트롯맨은 정성을 다해 부른다.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사랑의 대답으로서의 노래.

〈사랑의 콜센타〉는 레거시 미디어가 된 텔레비전이 나아갈 방향이 유튜브나 틱톡과 같은 숏폼 콘텐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일깨웠다. 〈내일은 미스터트롯〉과 〈사랑의 콜센타〉는 단순히 트롯 공화국의 탄생과 통치에 간여하는 것만이 아니다. 유튜브의 짧은 영상을 훑내내다가 저조한 시청률만을 남기고 사라진 프로그램을 떠올려보자. 미디어의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다. 어떻게 만나느냐. 단순히 보고 즐기느냐, 아니면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호흡하느냐. 직접 만나느냐, 미디어를 통해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4. 트롯 공화국의 미래: 내년, 후년에도 풍년이 될 것인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좋은 말이다. 하지만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많은 배가 한꺼번에 뜨면 곤란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서로 충돌할 수 있고, 살살 피해 가다 보니 고만고만한 움직임에 망망대해로 가기 전에 지칠 수도 있다. 지금 트롯맨이라 불리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들은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오랜 무명 생활 끝에 광명이 찾아온 이들에게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지나친 타박이 될까.

TV조선은 <사랑의 콜센타>와 <뽕숭아학당>에 트롯맨들을 계속 출연시키고 있다.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 프로그램을 아무리 매회 새롭게 만들어보려고 해도 노출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참신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더구나 이들은 TV조선뿐만 아니라 지상파 3사를 비롯하여 각종 방송사의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모습을 비추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광고모델로서도 언제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무시로 나타난다. 한마디로 트롯맨의 전성시대다.

그러나 이들의 전성시대가 얼마나 갈까? 이들의 대선배라 할 나훈아를 보라. 그는 상업광고는 전혀 찍지 않는다. 방송 출연도 자주 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는 십여 년간을 두문불출 칩거했다. 그러나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를 보라. 슈퍼스타가 무엇인지 그는 몸소 보여주었다. 단지 대중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신비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평소에는 기운을 잘 모아 좋은 노래를 만드는 데 힘쓰고, 공연장에 나타나서는 멋진 노래를 새로 들려주라는 소리다.

음악적으로 일취월장하지 않는 한, 스타의 수명은 매우 짧다는 사실을 방송사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내 방송의 시청률, 호응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

일은 미스터트롯)의 성공 이후, 지상파 3사는 물론이고 여러 종편 채널에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이들은 트로트가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온 물에 노를 저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트로트 프로그램이 나오면 트로트는 메가 히트곡도, 명곡도, 명가수도 배출하지 못한 채, 한 시절 인기 있었던 장르로 추락할 위험이 항상 있다.

지금도 포화 상태인데 방송사들은 트로트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낸다. 대중적 관심의 임계점을 지나면 트롯이 되었던 트로트는 다시 본래 무대의 주변으로 간다. 대중문화 관에서 이런 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대중은 변덕스럽다”고, “오늘의 스타를 내일 헌신짝처럼 버린다”고. 그것은 현상만을 본 것이다. 대중의 입맛이 금세 변하는 게 아니다. 같은 음식만 주니 쉽게 물리는 것이다. 방송사는 여러 음악 장르를 끌고루 대중에게 선보이고, 트롯 가수들은 세대교체 된 멤버답게 트로트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곡을 만들고, 갈고 닦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TV조선은 매년 오디션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이기에 <내일은 미스터트롯>과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배출한 가수들을 계속 자사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며 재미를 보려고 할지 모르겠다. 올해의 신인이 인기가 시들해지면 내년에 또 뽑으면 되니까. 그러나 그러다가는 프로그램 자체에도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트로트를 트롯으로 만들었으니 옛날 노래만 리마이벌해서는 안 된다.

5. 트롯 공화국에서 모두 안녕하십니까?

일제강점기에는 나라 잃은 설움을, 6·25 때는 전쟁의 고통을, 산업화 시

기에는 이촌향도의 이품을 노래한 장르가 트로트다. 다시 말해 한국 대중문화의 여러 산물 중에서 트로트만큼 긴 목록을 가진 문화상품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의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인간은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위로를 바란다. 그럴 때마다 음악이 늘 있었다. 트로트는 누가 들어도 어렵지 않은, 단순한 곡조에 진솔한 가사로 우리를 위무했다.

누구도 트로트가 가장 위대한 음악 형식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나훈아가 모차르트보다 뛰어난 음악가라고 말할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젊을 때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온갖 고생을 한 끝에 노인이 된 누군가는, 나훈아의 「머나먼 고향」을 들으며 모차르트 교향곡보다 더 진한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방송 프로그램은 클래식보다는 트로트에 가깝다. 대중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시대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상투적인 위로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위로가 필요하다. 고색창연한 트로트를 다루는 방송이 아니라 트롯을 새로 알리는 방송이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노래해야 한다.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노래하여 시니어 세대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어서는 곤란하다. 과거의 명곡과 취직 걱정, 집값 걱정, 노후 걱정 등을 담은 신곡이 조화롭게 공명하는 무대를 바란다. 트롯으로 승부를 보려는 방송사와 가수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위로를 건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트롯 공화국에서 모두 안녕하신가 하고 묻는 태도를 먼저 갖춰야 할 것이다.